

추석은 '만남'입니다



이산 65년 北 동생들이 그리운 김인성 할머니

'기다림'

가슴으로 낳은 김용환씨 가족 '선물'

베트남 신부 응웬티한씨 '제2의 고향'

여든을 넘긴 언니의 안경 속 눈망울은 북에 남겨둔 동생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은 아직 쑥스러웠지만 가족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다. 낯선 이국에서 첫 추석을 맞는 베트남 새색시의 얼굴은 '살림'으로 가득했다. 추석은 만남이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추

석은 '가족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서로를 끌어당긴다. 광주일보를 추석에 맞아 휴전선에 가로막혀 생이별한 이산가족, 입양을 통해 서로를 보듬은 가족, 낯선 이국에서 온 부인이자 며느리라고 첫 추석을 보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지면에 담았다. ▶관련기사 11·12면

“은 가족이 연우에 빠졌어요”

올해 결혼 19년차를 맞는 김용환(48·화순군 화순읍·조유순(여·48)씨 부부에게 올 추석은 특별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딸 연우와 보내는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생후 11개월 된 연우는 지난 6월 김 씨네 가족이 됐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연우는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 예쁘다. 오빠가 된 건중(17), 건우(16) 군도 새로 생긴 여동생에게 푹 빠졌다. 엄마가 출장을 갈 때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을 먹이고 씻겨주는 자상한 오빠들이다. 가족 회의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 김 씨 가족은 올 초부터 함께 영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조씨는 연우를 처음 본 순간 '내 자식'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한 가족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김 씨 가족은 언젠가는 연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지만 이 역시 현명하게 헤쳐 나갈 생각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생들이, 살아서 꼭 한 번 만나자”

평양이 고향인 김인성(83·광주시 북구 두암동) 할머니는 시간이 유난히도 더디게만 흐르는 것만 같다. 제20차 이산상봉 날짜가 정해지고, 2차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다. 최종 명단에 포함돼 65년간 그리워 했던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이번 추석에 두 아들과 함께 대구를 찾을 생각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산소가 그곳에 있어서다. 평안북도 정주에 고향인 남편의 묘소 앞에 앉아 "이북에 있는 내 동생들을 드디어 만날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생각이다. 만날 수 있도록 하늘 나라에서 기도해 달라고. 혹시라도 동생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온통 걱정 섞인 말만 떠오른다. 김 할머니에게 '만남'이란 가족이다.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이북에 두고온 부모님과 3명의 동생, 남한에서 만난 남편과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댁에서 한국음식 만들고 싶어요”

베트남이 고향인 응웬티한(29)씨는 이번 추석이 한국에서 맞는 첫 명절이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남편 박종일(40)씨와 결혼 후 입국 절차가 늦어진 탓에 지난 6월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그녀에게 이번 추석은 남다른다. 시댁 화실에서 명절을 된 뒤 친정엄마와 베트남식 추석을 한 번 더 보낼 수 있어서다. 또 그녀는 이번 추석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고향에서 배운 내일아트를 선보일 생각이다. 그녀는 한국 생활이 적응되면 본격적으로 내일아트를 할 꿈도 꾸고 있다. 고향에서 헤어디자인을 배운 그녀는 시어머니의 올 추석 머리 단장을 손수 해 줄 생각이다. 그녀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한국 요리와 베트남 요리가 비슷한 점이 많아 배우기 쉽고, 더욱 많은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김진수기자 mjna@kwangju.co.kr

새정치 인적쇄신 내홍 확산 추석연휴 호남 민심에 주목

박지원 행보 관심 ... 조국, 문재인에 “김무성 지역구 가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안의 여진이 확산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의 강력한 반발로 혁신이 통한 보다는 당내 분열을 촉발시키는 분위기다. 살신성인을 요구받은 계파 수장들은 대응을 삼가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 배제 및 정밀 심사 대상 기준에 포함된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기 총선에 당연히 출마한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박 의원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을 때 당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발표했다.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탈당 등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호남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지목받은 조경태 의원은 이날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반발했다. 과거 기소 및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공천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혁신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비주류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혁신안이 비주류 수장들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희정 충남 지사의 예외조항 적용,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 당무위원회 서면 출석 등을 거론하며 ‘주류에 의한, 주류를 위한 혁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는 여전히 인적쇄신을 강요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다. 조국 혁신위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어 연세 탈당이 이뤄진다 해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200만 민족 대이동... 서울~광주 7시간 걸릴 듯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27일)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올 추석 연휴기간 전국의 지역간 이동 인원은 3199만명.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데다 여유가 없으므로 자가용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혼잡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6일(토)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27일(일) 오후에 고속도로 정체가 극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휴 서울~광주 귀성길 소요시간은 7시간, 서울~목포는 9시간 20분이 예상된다.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광주에서 6시간20분, 목포에서 7시간40분이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추석연휴 날씨 | 26(토) | 27(일) | 28(월) | 29(화) |
|---------|-------|-------|-------|-------|
| | 맑음 | 맑음 | 맑음 | 맑음 |

20대 총선 누가 뛰나 3~5면
세시풍속 체험 나들이 13면
한가위엔 나도 셰프 14면
고향으로 부치는 편지 15면
불만한 연휴 극장가 17면
TV프로·하이라이트 23~25면

추석연휴 26~29일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식모집 | 062)605-1114

광주광역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Organizing Committee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대한 광주시민의 감동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OST EPIC (대서사시)
Economy · Positioning · Investment · Culture